



'위기의 전남 쌀 구하자'... 쌀 소비 촉진 향토업체 찾아서

(6)베비에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빵을 만들어 지방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던 베비에르가 이제는 가루쌀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 전국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앞장서고 전국 쌀 농가와와의 상생을 통해 백년기업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왼쪽부터 베비에르의 '우리쌀무화과쌀빵', 마옥천 베비에르대표, 대한민국 명장 명패와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장 당선 패 등 다양한 상징과 명패.



제과제빵 명장에서 이제는 백년기업으로 도약

4일 베비에르에 따르면 마옥천(54) 대표가 지난 1991년 광주 북구 임동에서 첫 가게 문을 연 뒤 2000년부터 서구 풍암동에서 지금의 '베비에르'라는 이름의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광주·전남·전북에 총 11개의 직영점이 있으며 담양과 순천에는 카페형 베이커리가 입점해 있다.

베비에르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마 대표도 지난해 5번 도전한 끝에 제과·제빵 분야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명장(이하 명장)은 산업현장에서 15년 근로 종사한 근로자 중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 기술자 지위 향상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986년부터 매년 한 차례 명장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농식품부 주관 가루쌀 빵지순례 이벤트 참여 기업으로도 선정돼 기간은 끝났지만, 빵지순례 후속으로 현재 전지점에서 쌀 제품 20%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루쌀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가루쌀 제과·제빵 메뉴의 개발·판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영모베이어, 성심당 등 전국 30여개의 유명 제과

마옥천 대표 2000년 설립 호남 11개 직영점 운영 작년 대한제과협회 중앙회장·대한민국 명장 획득 가루쌀 15t 사용 쌀 식빵 등 다양한 제품 선보여

점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중 베비에르는 쌀로만 치즈케이크, 우리쌀갈릭하니볼, 고르콘치즈 쌀빵, 우리쌀무화과쌀빵, 쌀 식빵 등 5개 제품을 전지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현재 한해 쌀가루를 15t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연구·개발해 쌀 소비를 늘려 갈 생각이다.

이 외에도 마 대표는 지난해 2월 지역 최초로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장으로 선출돼 오는 2025년 2월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지역별 전국 교차 세미나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교류와 함께 쌀 소비 촉진도 독려하고 있다.

마 대표는 이전에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빵을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적이 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후폭풍으로 고향에서 중국으로 판매되는 유자 수출이 막혀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생기자 고향군과 협업을 통해 3년여간의 시간을 들여 '고흥 유자빵'을 개발해 현재는 고향 지역으로만 납품되고 있다.

이처럼 마 대표는 항상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상생을 도모하다 보니 지역 대표 제과점 리더로 성장했다.

이러한 그의 최종 꿈은 베비에르가 백년기업이 돼 많은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되는 것.

마옥천 대표는 "제과는 기술적으로 5-10년 이상은 배워야 경쟁력이 생기는

데 요즘 작은 베이커리 카페 등 유사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서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회장으로서 부지런히 제빵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임기를 마무리할 때 그래도 업계가 조금은 ' 좋게 변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아직도 베비에르 빵이 최고 맛 있다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다"며 "백년기업이 오랜 꿈으로 자식이나 손주 때에 그러한 기업이 되길 소망하고 베비에르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배워 나간 후배들이 백년제과 기업의 꿈을 이뤄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태호 기자

금투세 폐지에 증권업계·개미들 '환호'

전문가들 "증시 자금 유입 물꼬"…코스닥 수혜 전망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자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소득세법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투자자 부담과 시장 선진화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반면 야당 내에선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면서 원칙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이처럼 금투세가 도입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과 폐지, 유예와 보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혼선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방침에 제1야당이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의 과세 대상인 개인 투자자는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소식 직후 온라인 증권 게시판에서는 "늦었지만 잘한 결정",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법안이었다", "1천400만 개의 승리"라는 등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제는 불법 공매도 근절과 과세 체계의 선진화 등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제언도 나왔다.

전문가들도 이번 결정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증시로의 자금 유입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투자이민'을 간다고 할 정도로 해외 증시로 자금이 유출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가 진정되고 국내 증시에 중장기적 투자 유인이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금투세 폐지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인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닥이 유독 부진했었는데 금투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스닥 시장의 반등 가능성에 주목했다.

한편으로는 금투세보다도 국내 기업과 금융시장의 본질적 체력 강화가 증시 상승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건협 전남도회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예타 선정 환영"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는 4일 '최근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라선 고속화는 전남과 전북을 아우르는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해 호남권은 물론 수도권과 남해안 간 접

근성 향상을 통해 관광객 유입 및 물류 수송이 활발해져 전남 동부권이 글로벌 관광 첨단 산업의 요충지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경재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 현재 경기침체와 건설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아울러 영암-광주 47km 구간 초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들도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광주신세계, 플레이스팟 키즈 브랜드 뜬다

마크곤잘레스 키즈 등 신규오픈

(주)광주신세계가 플레이스팟(구 신관)에 키즈 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4일 "VIP보다 더 소중한 VIB(Very Important Baby)가 신조어로 떠오르는 가운데, 패밀리룩을 선호하는 MZ부모를 타깃으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키즈', '마크곤잘레스 키즈' 등

을 플레이스팟에 오픈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플레이스팟에 문을 연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키즈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키즈 브랜드로 기존 브랜드의 베스트 컬렉션을 재해석해 미니 사이즈로 선보이면서 인기를 끌었다.

유럽의 트렌드를 이끄는 캐주얼 브랜드인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감성을 담은 키즈라인은 세련된 디자인과 고



품질로 패밀리를 연출하기에도 좋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플레이스팟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키즈 브랜드를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쳐겠습니다.

여수 앞바다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한 교통시장

◎ 장이서는 날 ◎ 매일

- 이용시간 : 05시 ~ 14시
- 휴 무 일 : 둘째, 넷째 일요일



여수 교통시장 풍물거리



여수 교통시장 입구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여수시 YEOSU SI

문의 : 062)650-2099